건축문화 사랑

Vol.022 10. SEP 2011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 2011.09 022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 062.521.0025 F 528.0026

세계적 작가의 폴리 둘레길 조성
광주폴리Folly 준공

자연과 인간 그리고 지방건설업계 자긍심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막 오르다.

시론
자연과 인간 그리고 지방건설업계 자긍심_ 조형근

Hot Issue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막 오르다.

건축과 도시계획
세계의 신도시 _1부 –개요 · 호주 그리피스 _ 도영준

삶과 건축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 상_2부 _ 윤기병

설계경기
목포대학교 교육지원센터 신축공사

사람 & issue
나는 건축사다!_ 조 창 호

특별기획
광주에 세계적 작가의 건축 폴리둘레길 조성된다! 광주폴리Folly 준공

光州폴리 Folly

자연과 인간 그리고 지방건설업계 자긍심

호남지역의 지방건설업계의 자긍심을 앞으로도 굳건히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자연환경 및 시대적 변화에 슬기롭게 조화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호남지역의 인재와 조직을 배양하여야 할 것이다.

조형근 교수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choken55@hanmail.net

진솔한 수주활동으로 일구어 낸 수주는 구성원 모두의 기쁨이 아닐까? 하지만 혼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뒤쳐진 경우에도 개인적이든 집단이든 간에 인간적 내부갈등을 해소하고 위기를 기회로, 주변 저변으로 부터의 아이디어를 전략으로, 동종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의 정보를 활용하여 다시금 알차게 충전하여 재도전하는 마음가짐을 굳건히 하여야 할 것이다.

입추, 처서가 지난 8월 말인데도 한낮의 온도가 30도를 훌쩍 넘어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다니! 다시 말해 한반도를 비롯한 지구촌 전역에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금년 초의 한파 지속과 9호 태풍인 '무이파'로 인한 농수산물의 작황도 저조한데다 이른 추석으로 인해 최근 물가상승 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는 건설인들에게 인간과 자연의 숙명적 인연을 다시금 인지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불과 얼마 전 이 시대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조차도 뉴욕 허리케인 '아이린'으로 인한 가옥 침수, 대중교통 수단의 중단, 9천 편 이상의 항공기 이착륙 취소 등 수십조 원의 재산 피해와 함께 일본에서의 지진으로 인한 원전 붕괴로 수많은 인명과 엄청난 재산 피해의 아픔은 아직도 지구촌 인류의 가슴속 메아리로 깊이 존재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건설산업! 삼위일체 불가분의 상관영향력 관계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기상이변에 의한 풍수해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지하층 침수 방지를 위한 단지설계 이행 여부를 점검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건설산업! 이들 삼위일체 불가분의 상관영향력 관계는 그 중요함의 간과에 경종을 울림과 더불어 건설신기술 개발 등 앞으로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자연과 인간에 밀접한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발전에 초석이 되어 지대한 공헌을 하며 우리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한반도 통일시대 또는 남북교류의 활성화에 따라 천문학적 투자가 될 산업이다. 따라서 건설인들은 요구되는 세계적 및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마인드 및 역량을 갖고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맡겠다는 지속적인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여야만 할 것이다.

가끔 강의(외부강의 포함)시 필자는 "행복은 성적순 입니까? 성적순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최근 박찬호 야구선수는 행복은 노력순이다 라고 한 바 있으나 노력의 결과는 결국 성적순으로 나타난다고 필자는 갈음한다).

대부분 성적순 아니라는 쪽에 손을 든다. 그러면 필자는 슬며시 반론에 들어간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 직업에 종사하면서 직업별 내의 꾸준한 노력에 의한 성적 순위는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김연아도, 박지성도, 이세돌도, 최경주도, 신지애도, 그룹회장도, 대통령까지도 성적비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같은 직업종사자들의 성적보다 우수함으로 인해 행복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의 확률이 더 높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겠지요? "

이러한 성적순의 행복은 중소규모의 회사나 단체에서도 그리고 재래시장 및 동네의 작은 점포에서도 이어진다. 승진이나 보직, 매출우위 등에 따라 해당 당사자의 희노애락이 교차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이념적으로 저조한 성적의 보유자를 위해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류 역사상 특히 생존에 앞서가는 위한 어느 사회에서도 선의의 경쟁 평가는 늘 존재하였음은 누구나 알 것이다.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 1위 국가라고 하는데 그들은 왜 대한민국의 근로자로 오고 싶어 할까? 사실 불만은 평가에 뒤진 사람에게서 자연스레 야기되지, 상을 받거나 칭찬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을까?

건설산업이 수주산업임은 주지의 사실이니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다!

전문적 지식을 갖춘 호남지역의 인재와 조직 배양 필요

진솔한 수주활동으로 일구어 낸 수주는 구성원 모두의 기쁨이 아닐까? 하지만 혼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뒤쳐진 경우에도 개인적이든 집단이든 간에 인간적 내부갈등을 해소하고 위기를 기회로, 주변 저변으로 부터의 아이디어를 전략으로, 동종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의 정보를 활용하여 다시금 알차게 충전하여 재도전하는 마음가짐을 굳건히 하여야 할 것이다.

제 살은 안 아프게 꼬집으며 남의 살은 아프게 꼬집는다면 인정하는 경쟁상대에 대한 공정한 배려와 도리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전통의 구수한 시루떡이 떡과 팥의 층이 연속으로 반복되듯이 세상살이의 연륜을 겸손하게 이루어 가야겠다.

미국 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호남지역의 중견건설업체가 하나 둘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즈음에 호남지역의 지방건설업계의 자긍심을 앞으로도 굳건히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자연환경 및 시대적 변화에 슬기롭게 조화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호남지역의 인재와 조직을 배양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제살꼬집기와 시루떡의 진정한 의미를 지닐 호남지역의 건설업계 가족은 물론 건설산업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의 직장과 가정에 진정한 행복과 건승이 가득하는데 우리 모두 힘을 합해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앞장 서 주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SUPER-ONDORI
www.superondori.co.kr (한글인터넷주소 "슈퍼온도리")

2011년 2월부터개정된 단열법규의
성능을 만족시키는 친환경 건축 외벽단열재

제품특징
단열성 : 열적성능을 극대화하여 단열성능 우수
경제성 : 기밀시공으로 냉, 난방 에너지 절약
쾌적성 : 결로예방으로 실내의 쾌적함을 유지
내구성 : 급격한 온도변화에도 제품의 물성유지
작업성 : 가볍고 연질의 롤타입으로 모서리, 꺽임 시공가능

제품명	종 류	규 격	용 도
SP5000-23T	Roll Type	23mm×1.2m×15m	건축물 외벽 단열재
SP5000-14T	Roll Type	14mm×1.2m×25m	건축물 외벽 단열재

www.superondori.co.kr
S&P (주)슈퍼온도리
제조원 :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동 171-34번지
TEL.062)951-8600 FAX.062)951-1852

圖可圖非常圖

도가도비상도

디자인이, 디자인이면, 디자인이, 아니다.

design is design is not design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막 오르다.

9월 2일 ~ 10월 23일(52일간)

'2011년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승효상, 아이웨이웨이)가 9월 1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앞 광장에서 프레스오픈과 개막행사를 갖고 2일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 52일의 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주제는 '도가도비상도圖可圖非常圖'. 즉, 이는 '디자인이, 디자인이면, 디자인이, 아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총감독인 승효상은 주제를 고민하면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문구를 변용하여 도(道)를 그림이나 디자인을 뜻하는 다른 한자인 도(圖)로 바꾸어 '圖可圖非常圖'로 정하였다고 한다. 즉 '디자인이라고 일컫는 디자인이 모두 다 디자인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디자인이 흔돈에 빠진 이시대에 우리모두를 성찰하게 하는 절실한 주제이다.

승효상 총감독은 "결국 '디자인이란 무엇인가'를 모두에게 묻는 것이 네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목표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디자인에 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변화하는 환경을 사유하는 단초기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그는 또 "디자인 과잉시대에 디자인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삶의 모습을 사유하고, 디자인을 오브제가 아닌 장소와 사람의 관계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44개국에서 133명의 작가, 73개 기업이 참가해 주제, 유명, 무명, 커뮤니티, 광주 폴리, 비엔날레시티의 여섯 개의 대주제로 전시되는데 '도가도비상도'의 기반 속에 디자인의 주체와 디자인의 현장을 중심으로 소주제별로 구성되어 변화를 전제로 한 새로운 디자인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전'은 비엔날레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해 내면서 전체 섹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전시와 참여가 혼합된 설치 · 미디어 · 그래픽 · 조경 · 건축 · 공연 등으로 구성되었다. '유명'은 브랜드 이름이나 가치가 널리 알려진 디자인들의 예를 일간지 섹션처럼 정치 · 경제 · 문화 · 스포츠 · 환경 · 주거 등과의 복합적 관계를 다양한 관점으로 조명하였다. '무명'은 디자이너 이름이나 브랜드 가치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세상에 널리 통용되고 있거나 묻혀 있는 디자인 요소들을 원시적인 기술에서 생명공학 · 가상현실에 이르기까지 구성하였고, '커뮤니티'는 특정장소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공동체 개념에서 벗어나 도시 · 음식 · 녹색 등에 관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현장진행형으로 다양하게 형성되는 열린 공동체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광주폴리'는 광주의 도심 속 옛 읍성터와 폐선부

개막식에 이어 전시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승효상 총감독

지 구간인 푸른 길에 도시의 역사와 흔적, 현재의 일상과 만나는 소규모 기능성 도시공공건축물을 조성하는 연차별 프로젝트로써 10개의 폴리가 첫 선을 보였다. '비엔날레시티'는 전시장을 중성적 복합도시공간으로 가정하고 각 실별로 공간적 특성을 부여하며 각 섹션을 엮어 가상의 디자인시티로 공간을 구성하고 도시를 여행하듯 관람동선 연출하였다.

또한 '아카데미'는 이번 디자인비엔날레 기획 준비과정을 디자인해 나가며 주제와 이슈들을 학술적으로 심화시키고 소통의 장을 열어나가는 릴레이 워크숍과 심포지엄으로 구성되고 있다.

프레스오픈에 이어 기자들에게 공개된 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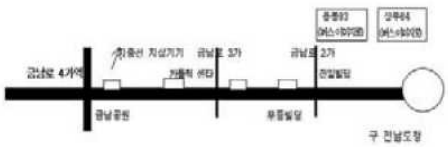
필드 – 아이 웨이웨이(중국)/ 주제전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 작품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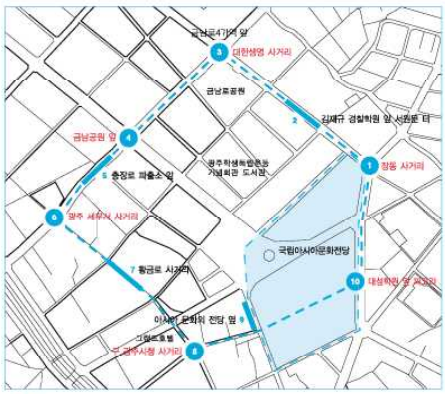
테이블매너 – 허니 앤 버니(오스트리아)/ 커뮤니티

바이크행어 – 안지용&이상화(한국)/ 유명

장 소	전시공간	주요구성
비엔날레전시관	1 전시실	Cluster City
	2 전시실	Network City
	3 전시실	Landscript City
	4 전시실	Grid City
광주폴리	광주시내음성터자리	광주폴리프로젝트
시민참여프로그램 '나도 디자이너: 도시를 누비는 디자인' -12팀		
금남로4가역	ECO Garden	재활용품 활용한 미니실내정원,
	here+no=hero 등	철재질의 아트벤치
시내버스 및 지중선지상기기	부자(父子)되세요	행복한 가족이미지 일러스트
비엔날레 경유 시내 버스 외부 광고면 (상무64, 용봉83)	아트큐브	행복한 가족이미지 일러스트
	관심그리고놀라운일!	초등학교 어린이들의얼굴그리기



주말콘서트: Fringe-free play'	비엔날레전시관외부중정	상시 공연
'비엔날레 프리 /플리마켓'	비엔날레전시관외부중정	공예공방과 시민관람객들의 미적 솜씨를 상품화하여 행시현장에서 전시판매
'(주)광주신세계와 함께하는 디자인 아이디어공모전 '	주제: '환경을 생각하는 생활 속의 디자인' 기본화구 이용한 디자인 아이디어와 간략한 설명글 제출 시상: 10. 23(일) 18:00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폐막식장	
'뷰티 미용체험'	비엔날레전시관주변	페이스페인팅, 네일케어, 헤나아트 등



광주폴리

1 Juan Herreros
2 Florian Beigel
3 Nader Tehrani
4 Alejandro Zaera-Polo
5 Peter Eisenmann
6 S.H Jung + S.J Kim
7 Sung-Yong Joh
8 Dominique Perrault
9 Francisco Sanin
10 Yoshiharu Tsukamoto

디자인 비엔날레 전시장소

이번전시회는 비엔날레전시회장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곳에서 전시회가 이루어지는데 각장소와 주요구성은 위와 같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거장들이 참여한 '광주폴리'도 주목을 받았는데 예술성과 공공성을 더한 광주디자인 비엔날레는 올 가을을 더 풍성하게 자리매김할것으로 생각된다.

박종호 건축사기자 k21024@chol.com

세계의 신도시_ 1부

개요 · 호주 남동부 뉴사우스웨일스주 그리피스

City of Griffith

2011년 4월호부터 건축과 도시계획이란 지면을 개설하여 8월호까지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김현숙 교수의 전라북도 전주시 도시계획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호부터는 세계 여러 신도시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도시계획 전문가인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도영준 교수의 원고를 연재 · 기획하였다.

도 영 준 교수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urban-50@hanmail.net

신도시는 대도시의 주택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대도시의 과밀화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또,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자원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대규모 공업단지가 발생하게 되고, 이 지역의 적극적인 개발과 공업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배후 주거단지로 신도시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반면, 자동차 대중화시대의 출현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제공해야 할 도시가 이제는 반대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었고, 거기에다 각종 환경오염으로 건전하고 쾌적해야 할 도시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어 자동차 공해로부터 해방을 위한 신도시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신도시는 어느 관점에서 연구하고 어떤 정책수단을 사용하였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명칭도 다양하게 부른다. 1919년 영국의 전원도시협회(Garden City Association)에서는 신도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① 신도시는 건강한 생활과 산업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계획 개발된 도시로서 그 규모는 사회생활의 편익을 완전히 갖출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② 도시의 공간적 범위는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고 토지전체가 공유(公有)이든가, 커뮤니티를 위하여 신탁된 것이어야 한다.

영국 도시계획가인 하워드(Sir Ebenezer Howard)의 전원도시(Garden City) 이후 신도시 개발이 활발해 짐으로써 신도시의 개념도 대도시의 평면적 확산 억제와 인구 및 산업 집중의 완화 및 국토공간의 균형 있는 정주체계 설정 등 국토 및 지역개발전략의 하나로 변화되고 있다.

신도시는 대도시의 주택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대도시의 과밀화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또,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자원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대규모 공업단지가 발생하게 되고, 이 지역의 적극적인 개발과 공업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배후 주거단지로 신도시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반면, 자동차 대중화시대의 출현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제공해야 할 도시가 이제는 반대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었고, 거기에다 각종 환경오염으로 건전하고 쾌적해야 할 도시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어 자동차 공해로부터 해방을 위한 신도시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해외에서 이주해 오는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도시, 퇴조하는 자원중심의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도시, 새로운 항구도시, 바다를 매립한 농경지역의 중심도시, 그밖에 새로운 수도로서의 신도시 개발도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발된 신도시는 그 나라 혹은 도시마다 상이한 목적과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주로 1950년대 이후 개발된 기업도시, 실험도시, 국가의 특정 정책에 의한 신도시, 신수도 등을 중심으로 개략적인 도시계획사적 특징을 가니다 순으로 연재하도록 한다.

1. 그리피스/City of Griffith/관개(灌漑) 지역 중심도시

호주 남동부 남태평양에 접한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주 남서쪽에 위치한 신도시(planned city)로 연방수도인 캔버라(Canberra)시 도심에서 북서쪽으로 약 358.0㎞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도시 이름은 당시 뉴사우스웨일스주 보건장관이었던 아서 그리피스(Sir Arthur Griffith/1913 1982년)의 이름에서 따왔다.

그리퍼스 센트럴(2007년 개장) 안내표지 전경

1987년 독립적인 행정구역(시)이 되었으며, 오늘날 평균 연령 약 34세의 젊은 도시로 인구는 약 1만6천 명(2006년)이다. 그리피즈의 도시계획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그리피스는 MIA사업의 중심도시로 개발되었다.
_ MIA : Murrumbidgee Irrigation Area/무럼 비지 관개지역

② 연방수도 캔버라를 계획한 유명한 도시계획가인 월터 그리핀(Walter Burley Griffin)이 1916년 계획하였다.

② 시내 교차로는 대부분 교통신호등이 없는 라운드어바웃(roundabout)으로 처리하였다.

③ 도시공간구조는 시내를 관통하는 철도를 중심으로 __ 형으로 형성하였다.

④ 초기에 이탈리아계 노동자들이 많이 살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인구의 약60.0% 정도기 이탈리이계이며, 그밖에 많은 외국계 주민들에 의해 다문화 사회를 이루고 있다.

오늘날 그리피스의 주거지 개발은 년 평균 약 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자족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공장들을 유치하여 산업도시로 전환하고 있으나 아직은 농산물 생산의 중심지이다.

상업시설(Griffith Central/shopping center)을 중심으로 시가지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같은 인구 규모의 도시에서는 호주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의 하나가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그리피스 시가지환경

그리피스 중심광장 전경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 상_ 2부

Firmness, Commodity and Delight

2011년 4월호부터 건축인들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삶과 건축'이라는 지면을 개설하였다. 이번호에는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윤기병 교수의 '건축계의 노벨상 – 프리츠커 상'이란 주제로 2회 연재 · 기획하였다.

윤기병 교수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cedek01@gmail.com

프리츠커 상 수상자를 배출한다는 것은 우리 건축계의 희망이다. 이를 실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원인을 외적 문제만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 협회는 물론 개개인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아직 우리는 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보다 이를 만드는 능력을 더욱 가치 있게 생각하는 현실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사회는 변화하고 있으며, 건축문화를 통한 부가가치의 실현의 사례를 우리 건축사가 보여주고 설득해야 하는 시대라 할 수 있다. 건축의 사회적 중요성과 위대함에 대하여 우리끼리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일반 대중이 이를 수용하고 있으며, 그 잘못을 과연 우리는 대중이 우매하다고 치부할 수 있는 것인가? 과거에는 정치가 대중을 우매하다고 하여 왔으나, 이제 대중을 우매하다고 이야기하는 집단은 절대 정치를 할 수 없는 사회로 변화하였다. 즉, 대중과 함께 호흡하지 못하는 어떠한 집단도 사회적 영향력 발휘가 불가능한 것임은 물론 존재가치가 없어지고 있다.

건축은 문화적으로도 환경 등의 시대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전문인이다. 그러나 건축이라는 문화를 통한 삶의 질의 개선과 문화적 생활의 향상 그리고 경제적 이득에 관한 소통을 하지 못할 때, 건축사의 입지는 날로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양한 건축문화 행사가 벌어지고 있으나 그 행사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축계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로 대변되고 있다. 즉, 사회적 소통을 하지 못하는 책임은 우리 스스로에 있으며, 협회를 중심으로 한 모든 건축사들의 노력이 절실할 때이다. 프리츠커 상이 탄생한 배경에는 프리츠커 가문이 루이스 설리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그리고 미즈 반 데 로에와 같은 위대한 건축사들이 설계한 건축물이 즐비한 시카고에서의 안목을 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목을 통하여 건축이 얼마나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이득 또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열쇠 중 하나로 건축이 있으며, 그 가능성에 관하여 대중과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제도적 문제의 해결

프리츠커 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사회적 계약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공정성을 이유로 디자인을 중시하는 계약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건축문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많은 문화적 프로젝트의 경우는 과거의 실적 또는 건축디자인 계획안 등 건축사의 건축적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가격으로 건축사를 선정하는 입찰제도 등 건축 외적 능력을 중시하는 제도나 관례가 적지 않다.

이와 함께 턴키제도는 건축사의 입지를 좁히는 역할도 하고 있다. 턴키제도는 설계를 시공사가 하는 작업의 일부로 만들어 건축사가 이의 실행을 관리 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에 의하여 사회적 자산이라 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을 포함한 많은 건축물들이 건축사가 아닌 건설회사의 제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로부터 실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총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하여야 하나, 현재의 제도는 설계를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권한은 물론 프로젝트 진행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 조차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내적 역량 강화

프리츠커 상 수상자 배출을 위하여는 외부적 환경 조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건축사 자신의 노력이다. 최근 80세가 넘은 프랭크 개리가 은퇴하기는 너무 어리다고 이야기하였듯이 꾸준하고 지속적인 작품활동에 대한 열정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많은 건축사들이 60세가 넘어서도 지속적이며 정력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건축사들의 치열함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분위기가 프리츠커 상 수상자 배출의 원동력의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신만의 철학과 스타일 그리고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이를 세계 시장에서 검증을 받으며 성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해외 건축사들과의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세계 건축 시장에서의 입지를 수 년간 다져 갈 때 만이 진정한 프리츠커 상 수상자 후보로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을 통한 세계적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속할 수 있다는 의미는 세계 시장에서 자신의 작품의 독창성을 인정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협회 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일본예술가 협회가 Praemium Imperiale 예술상을 제정하여 예술가들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돕고 있다. 1989년에 제정된 이 상은 건축부문에서도 세계적 건축사들에게 시상을 하며, 이들과 일본 건축사들의 교류를 활성화 하여 일본 건축사들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계는 유능한 인력의 수급과 함께 젊은 건축사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의 업무 시간과 봉급으로는 좋은 인재 수급에 한계가 있다. 현재의 경제적 보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며, 대신 이를 보상하는 자기 발전의 시간과 기회를 젊은 건축사들에게 제공하여 젊은 나이에 탈진하여 탈락하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프리츠커 상 수상자를 배출한다는 것은 우리 건축계의 희망이다. 이를 실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원인을 외적 문제만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 협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소통의 노력을 바탕으로 건축설계 분야에 대한 산업적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내적으로 유수한 인재의 수급 노력과 육성, 그리고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써야 할 때이다. 또한 개인적 노력이 기반이 되어야 하며, 함께 노력하는 건축사들이 꿈을 갖고 협력과 경쟁을 지속할 때 우리의 희망은 이루어 질 것이다.

▶ 과거 Praemium Imperiale 예술상의 건축부문 수상자

– 지금까지 총 2회에 걸쳐 '삶과 건축'을 연재해 주신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윤기병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포대학교 교육지원센터는 재학생들과 지역 교육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청15에 총공사비 7,099,000천원, 연면적 6,200㎡ 규모로 건축할 예정이다. 본 설계 경기에서 당선작은 (주)에스디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가, 우수작은 (주)발해 건축사사무소가, 가작은 (주)단우 건축사사무소의 안이 선정되었다.

- 당 선 작 (주)에스디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 우 수 작 (주)발해 건축사사무소
- 가 작 (주)단우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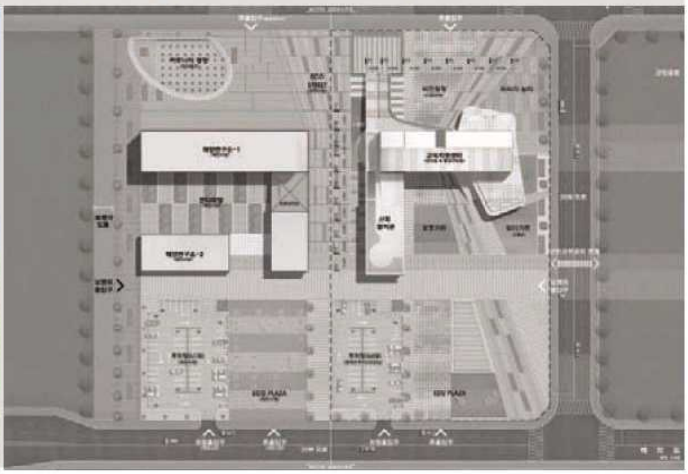
목포대학교 교육지원센터 신축공사

당선작 (주)에스디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_ 한상묵 건축사

부지면적 : 13,750.00㎡ / 건축면적 : 1,727.34㎡ / 연면적 : 6,350.70㎡
건폐율 : 12.56%(법정20%) / 용적률 : 44.11%(법정100%)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규모 : 지하 1층, 지상 7층 / 외부마감 : 친환경 목재판넬, 금속판넬, 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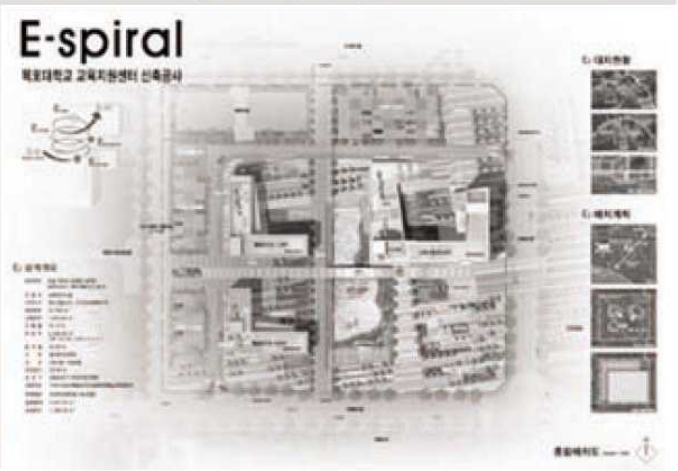
우수작 (주)발해 건축사사무소_ 이주경 건축사

부지면적 : 13,750.00㎡ / 건축면적 : 2,441.60㎡ / 연면적 : 6,314.97㎡
건폐율 : 17.76%(법정20%) / 용적률 : 43.99%(법정100%)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 규모 : 지하 1층, 지상 6층
외부마감 : 알루미늄 복합 판넬, thk18 복층유리, 친환경 합성목재



가 작 (주)단우 건축사사무소_ 이승권 · 최명철 건축사

부지면적 : 13,750.00㎡ / 건축면적 : 1,943.64㎡ / 연면적 : 6,358.95㎡
건폐율 : 14.14%(법정20%) / 용적률 : 44.59%(법정100%)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규모 : 지하 1층, 지상 6층
외부마감 : THK24 로이복층유리, 압축목재패널, 목재루버, 메탈유공판넬



나는 건축사다!_ 조창호 건축사

완산칠봉의 제일봉 아래 자리한 이상건축. 조용한 소로에 카페같이 세련된 모습이다. 완산칠봉이 동학농민운동 때 격전이 벌어졌던 장소라서일까?
대로처럼 막힘없고, 군더더기 없는 조창호 건축사의 삶의 이야기가 희망의 빛처럼 강하게 다가온다. 이제 그의 삶의 한켠을 들여다 보기로 한다.

전북/ (유)건축사사무소 이상건축 조창호 건축사

"건축은 희생이다"

새로운 건물이 생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건물을 이용한다.
그들은 이미 눈에 보이는, 존재하는 공간을 경험하게 된다.
서로 다른 많은 사고들이 또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전, 새로운 건물이 생기기까지의 생각은 갖지 못한다. 태초의 창조주도 그랬을까? 출입을 이루는 현관에서부터 근심을 덜어내는 화장실까지 크고 작은 서로의 모든 공간들을 조율하며 생명을 불어넣는 애정과 노력들... 누군가 기억하고 탄성을 자아내게 할 수 있을까?
굳이 감사가 아니더라도 그들이 만들어 내는 삶을 보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 그런 의미에서 "건축은 희생이다"라는 생각을 해본다.

건축설계활동과 에피소드

대표적인 작업을 꼽는다면 한스타일 진흥원, 자원봉사 혁신센터, 용흥초등학교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한스타일 진흥원은 한옥, 한지, 한식, 한복, 한국음악, 한글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연구, 교육, 전시, 판매를 위한 시설을 갖춘 전통문화시설물이다. 3차원적인 공간은 아니지만 2차원적인 평면에서 직각으로 만나는 선이 하나도 없도록 작업한 것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아마도 평소 존경하는 자하하디드의 문법적이지 않으면서 이루어지는 비정형의 디자인에 일부 영향을 받은 듯 싶다.
작업 중에 힘들었지만 그게 오히려 뜻밖의 좋은 결과를 가져와 재미있었던 경험도 있다.
용흥초등학교 현상설계에 당선된 후, 실시설계를 위해 도교육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휘어진 평면과 새로운 공간개념(초등학교=놀이터)에 당황한 공무원들이 현상안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문제는 시작되었다. 심지어는 실시설계 포기까지도 각오할 정도였다.
우여곡절 끝에 관철시킨 현상안은 사용승인 후, 교육부장관상을 받게되었으며, 담당공무원들 또한 모두 상을 받게 되었다.
그덕인지 그후로 작업한 10여개의 신축학교 설계는 별 어려움없이 서로 만족하며 진행한 적이 있었다.

건축사로써 보람을 느낄때

구도심활성화, 도시재생, 한옥 보존지구 등의 도시적인 문제들에서 도시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나의 지식과 생각을 구할 때 나에 일련의 작업들이 그래도 가치가 있었다라고 느끼고, 그러한 도시문제에 대한 자문이 내가 해야하는 사회적인 의무이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회적인 봉사가 아닐까하고 생각한다.

용흥초등학교&전주고등학교(2000)

한스타일 진흥원(2010)

나는 건축사다!

건축이나 도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자격자들의 경제적인 논리가 난립하는 현 건축설계 시장에서 전문적인 자격과 소양을 갖춘 건축사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때라고 생각한다.
"나는 가수다"의 가수들처럼 "나는 건축사다"는 이름으로 불리어도 될지 스스로의 점검과 노력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현실에 안주하는 안일한 태도가 아닌 시대의 흐름을 읽고 시대의 요구에 부흥하여 행동할수 있는 준비된 자세를 갖추고, 실천하는 지식인이 되었으면 한다.

취재 · 정리 : 양우현 건축사기자
bh1493@chol.com

전주시 자원봉사혁신센터(2005)

토방
(주) 토방건축사사무소
(주) 토방 하우징

(주)토방건축사사무소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54-47번지 대표번호 | T.062-225-9745~6 F. 062-225-9747

(주)토방하우징(공장)
주 소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210-4번지 대표번호 | T.061-373-4760 F. 061-373-4763

광주에 세계적 작가의 건축 폴리둘레길 조성

– 정체된 구도심에 변화와 활기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세계적인 건축거장들이 참여한 명품 도시공공시설물 10개가 광주에 들어섰다. '광주폴리'라 명명된 이 작품들이 지난 9월 1일,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식 개막을 앞두고 광주 동구 금남공원 앞에서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강운태 광주시장, 윤봉근 시의장, 승효상 비엔날레 총감독, 김영준 광주폴리 큐레이터, 도미니크 페로, 후안 헤레로스, 플로리안 베이겔 외 다수 폴리 참여건축사 등이 참석해 시민과 함께 광주폴리의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준공식 직후에는 10개의 폴리를 돌아보는 '폴리투어'가 있었는데 각각의 폴리에서는 폴리를 설계한 건축사의 설명과 함께 다양한 퍼포먼스와 이벤트가 펼쳐졌다.

본지에서는 지난 2011년 3월호(16호) 기획지면을 통해 광주폴리 설치계획과 의미를 소개하였으며 이번호 기획지면에서는 지난 9월 3일 본지 편집위원과 학생기자들이 현장 탐사한 폴리사진과 간략한 내용을 게재하고자 한다. 각 폴리의 상세한 내용은 스마트폰으로 게재된 폴리QR코드를 접속하면 알 수 있다.

9월 1일 금남공원 앞에서 열린 준공식

9월 3일 열린 편집위원과 대학생기자와 폴리답사

❺ 피터 아이젠만(미국)

/ 충장로 경찰서 앞 – 99칸

한옥의 경우 건물 안쪽의 빈 공간이 존재하고, 각 공간마다의 위계질서가 있는데 이를 하나의 건축적 요소로 활용하고 재해석해 프로젝트에 도입하고자 하였다.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지을 수 있는 최대 개수인 99칸으로 구성된 폴리를 광주 시민들에게 선사하였다. 하지만 입구의 큰 공간(칸)을 제외한 개수이므로 실질적으로 99+1칸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본지 편집위원들이 방문했을 때에는 주변 상인들과의 마찰로 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하였다.

❹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스페

/ 금남로 공원 사거리 – 유동성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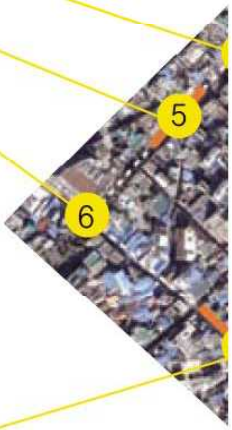
폴리는 크게 두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는데 첫
남로 사거리 인도의 기존 시설물들과 지하상
피를 아우르는 구조물, '지렁이(Worm)'이다. 이
에 있어 물리적-시각적으로 방해요소가 되었
시설물들을 덮음으로써 보다 쾌적한 보행환경

둘째는 공원을 향한 계단식 구조물인 '하하(
원을 향해 치단된 벽을 제거하여 인도에서 공
향상시키고, 공원 및 지하광장 그리고 무엇보
접근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❻ 김세진 + 정세훈(한국)

/ 황금로 입구 – 열린 장벽

'열린 장벽'이라고 명명한 광주폴리 공모전 당선작은 현도시의 삶과 소통하는 옛 읍성벽 복원이 컨셉인 작품이다. 이는 부유하여 주변의 흐름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 기능을 수반한 조형물이다. 옛 읍성벽의 일부였던 벽돌을 표상하는 분절된 오브제들을 바닥과 천장, 두 층의 공간적 범위에 각각 깔리고 부유하여 읍성의 영역을 표시하였다.



❼ 조성룡(한국)

/ 황금로 – 기억의 현재화

작가는 옛 읍성터를 비롯한 황금로의 지워진 역사를 기억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억을 생성하는 폴리를 만들고자 하였다. 당초 계획된 조형물은 청동합금 재질의 황금색 나무 형태로서 나무의 아래 줄기부분에는 원형의 플랫폼 벤치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쉴 수 있고, 나뭇가지에는 배너, 깃발 등을 설치하도록 설계했었다. 그러나 황금동 콜박스 사거리로의 빈번한 차량유입으로 인해 기존 설계안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당초 계획과 달리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은 옛 읍성터 지도가 표시된 폴리가 낮게 자리하였다.

❽ 도미니크 페로(프랑스)

/ 구 광주시청 사거리 – 열린 공간

목재와 메탈 매쉬 재료를 사용하는 폴리는
전 건축물의 나무기둥, 누각과 처마에서 그 컨
용하였으며 사이트 주변의 일상적인 생기를 나
위해 포장마차의 구조를 활용하였다. 바닥면에
의 황금색 포장을 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물의
다. 황금색의 폴리는 낮에는 자연광을 밤에는
주변상가들의 야간 조명과 조화를 이뤄 새로운

되다! 광주폴리Folly 준공

PAVILION(공간적 특성) : 파빌리온(시민이 참여하는 공간으로서의 광주폴리)
PLACE(폴리 설치 장소) : 광주(광주폴리 디자인과 설치될 장소와의 상관관계)
PEOPLE(사용자) : 광주시민(시민들과의 직접적인 교감)
PROGRAM(프로그램) : 도심재생을 유도하며 주위 환경에 꼭 필요한 기능에 대한 고려
PATTERN(마스터플랜) : 도심 활성화에서부터 광주광역시 전체로 파급될 광주폴리의 장기적 전략

인)
절

째는 금
가 캐노
는 보행
던 기존
을 조성하였다.
naha)'이다. 기존 공
광원으로의 접근성을
다 녹지로의 시각적

❸ 나데르 테라니(미국)

/ 대한생명 사거리 – 광주사람들

도로 가장자리에는 가로수들이 세심하게 줄지어 서서 거리에 방향성을 부여하고 있다. 계획은 지면과 하늘 사이의 나무들로 이루어진 자연 공간을 파고드는 것이다. 이는 불규칙적으로 교차하는 강철봉으로 채워지며, 기둥 모양의 강철봉은 공중에 떠 있는 수평 구조물로 변모한다. 나뭇가지의 논리를 차용함으로써, 살아 움직이는 듯한 구조가 머리위에 떠 있으면서, 한때 읍성이던 공간에 실체감을 부여하는 모퉁이 자리를 배회한다.

❷ 플로리안 베이겔(독일)

/ 제봉로 김제규 경찰서 앞 – 서원문 제등

경찰학원 앞의 휴식공간과 버스 승강장처럼 머무는 공간이 존재하는 이 인도 위에서 플로리안 베이겔은 앉아서 쉴 수 있는 조형물을 제안하였다. 시민들은 앉아 쉴 수도 있고 버스를 기다릴 수도 있으며, 또한 공부를 하다가 잠시 나와 친구와 담소를 나눌 수도 있다. 인근 학교와 학생들이 밀집해 젊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적 특성을 살려, 보다 삶이 느껴지는 활기찬 장소로써 폴리 주변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❶ 후안 헤레로스(스페인)

/ 장동사거리 – 소통의 오두막

이 구조물은 작은 단위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어 설치와 해체가 매우 용이하며 유지보수가 쉽도록 설계되었는데 세 개의 기둥과 케이블에 의해 지지되었다. 특히 조명, 음향기기, 난방, 와이파이(Wi-Fi)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낮에는 기존의 나무들과 어우러진 조형물로써 밤에는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을 비추어주는 조명으로써 역할을 하게 된다.

❿ 요시하루 츠카모토 (일본)

/ 대성학원 앞 – 잠망경과 정자

작가는 이 주변에 높은 건물이 들어섬에 따라 우리 눈 앞의 시야가 점점 더 좁아지게 되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시각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새로 건립될 아시아 문화전당과 읍성터까지의 전체적인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25M 높이의 잠망경을 제시하였다. 이 근방에는 학생 유동인구가 많은데 잠망경을 통해 보는 세상은 학업으로 지친 학생들에게 넓은 시야를 제공하여 활력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구조물까지 넝쿨나무가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시간이 경과하면 푸르게 변모하는 잠망타워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고
셉을 차
타내기
는 원형
영역성을 표현하였
LED 조명을 통해
미지를 창출하였다.

❾ 프란시스코 사닌(미국)

/ 광산길 보도 – 사랑방

폴리는 앞 뒤로 개방된 세장한 2층 규모의 콘크리트 프레임, 간단한 계단 그리고 유리벽으로 구성되었다.
구시가지를 조명하는 창으로써 여러 가지 공연이나 행사를 관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폴리는 투명성과 투과성을 지닌 유동적인 공간으로써 시민들의 쉼터, 전망대, 아시아문화전당을 향한 입구 그리고 아주 작은 전시장 등으로 다양하게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김정섭 교수 별세

– 정년퇴임 1년 앞두고 지난 8월 10일 과로로 별세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김정섭 교수가 유난이도 무더웠던 8월 10일 오후에 정년퇴임을 1년 앞두고 과로로 인해 별세하여 주위를 안타깝게 하였다

故 김정섭 교수는 모교인 조선대학교에서 30여 년을 몸담으며 후진 양성과 강의 및 연구활동 그리고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우리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건축 구조 및 재료분야에 지대한 학술적인 업적을 남겼다.

故 김정섭 교수의 그간 이력을 살펴보면 1947년 전남 완도에서 태어나 조선대학교 건축과에서 공학사(1971), 공학석사(1982),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구조공학박사(1997) 학위를 취득하였다.

1979년 교수로 임용된 후 건축학부장, 일반대학원과 산업대학원 주임교수, 건설기술연구소장, 대학 시설부처장, 공학교육인증 건축공학전공 프로그램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故 김정섭 교수는 30여 년 동안 콘크리트, 목재, 석재, 철골 등의 건축구조 및 재료와 보수 및 보강, 전통 목구조와 석조문화재, 건설안전 분야 등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저서 및 학술, 건축실무 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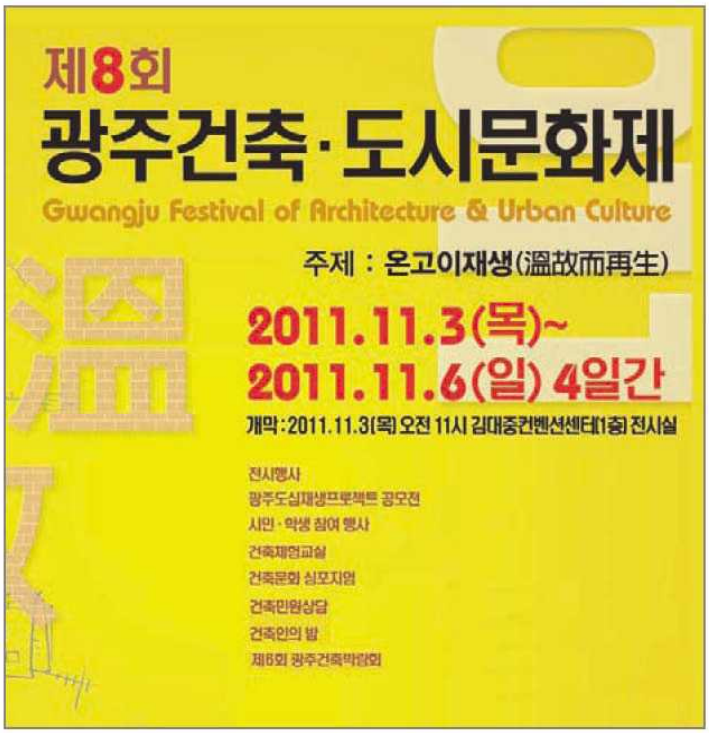
대외 활동으로는 대한건축학회와 구조물진단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 이사를 맡았으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건설기술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였다.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박강철 교수 정년퇴임식 열려

– 그간의 업적과 공로로 건축학부 명예교수로 임명돼

교육과 연구에 반평생을 바쳐온 조선대학교 건축학부(건축학전공) 박강철 교수가 동료 및 후배 교수와 제자들의 아쉬움 속에서 강단을 떠났다. 지난 8월 20일 박강철 교수의 정년퇴임 행사가 조선대학교내 솔마루 레스토랑에서 진행되었으며, 행사에는 공과대학장, 공과대학 건축학부장, 건축학부 동문회장 외에 광주전남권 대학의 여러 교수들과 박강철 교수의 지도를 받은 학생들을 포함하여 약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정년퇴임식은 약력소개–공로패 및 기념품 증정–송별사–퇴임사–축하연주 등의 순으로 1시간여 동안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박강철 교수는 송별사를 통해 "이렇게 무사히 정년퇴직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며, 모든 공을 여러 동료 교수와 제자들에게 돌렸다. 전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중앙문화재위원회 위원장까지 지낸 박강철 교수는 1980년부터 교수로 재직하여 교내에서는 물론, 광주, 전남권 및 전국적으로 활동영역을 넓혀 가며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한편 박강철 교수는 그간의 업적과 공로를 기려 정년퇴임과 함께 건축학부 명예교수로 임용되었다.



승효상 건축사, 광주문화재단 '문화나무 상상강좌' 강연 나서

– 9월 29일 (목) 오후 4시, 빛고을 시민문화관 다목적실(4층)에서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이자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대표인 승효상 건축사가 광주문화재단이 마련한 '문화나무 상상강좌' 8번째 강연자로 나선다.

광주문화재단은 올해 초부터 '문화광주의 내일을 상상하라'는 주제로 국내외 스타급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문화나무 상상강좌'를 마련하였다.

'문화나무 상상강좌'는 건축, 미술, 문학, 뮤지컬,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분야 10명의 인사들을 초청하여 매달 한차례씩 시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강연으로 그동안 '맘마미아', '아이다' 등을 잇달아 성공시킨 신시뮤지컬컴퍼니 박명성 대표와 한국국제아트페어를 아시아의 대표 아트페어로 끌어올린 표미선 한국화랑협회장, 2006 광주비엔날레 총감독을 역임한 김홍희 前 경기도미술관장 등이 강연하였다.

승효상 건축사 강연 이후에도 비언어극 '난타'를 세계적 퍼포먼스로 키워낸 송승환 PMC 대표 강연(10월 29일 목요일 오후 4시), 세계적 문화예술교육가 스캇 놉 브랜던의 강연(11월 24일 목요일 오후 4시)도 진행될 예정이다.

승효상 건축사의 이번 강연은 오는 9월 29일 목요일 오후 4시, 광주 남구 빛고을 시민문화관 다목적실(4층)에서 '이 시대 우리의 도시와 건축'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곽승국 전담기자 ksk830710@hanmail.net

광주 사직공원에 문화예술향기 불어 넣는다

– 공공예술프로젝트사업에 한국 차세대 건축사 조민석 등 참여작가 5인 선정

우측부터 승효상, 신혜원,이민아, 박흥근, 김영준, 조민석, 박동준 건축사

광주의 도심 공원인 사직공원이 새로운 공공 조형물로 조성된 문화예술공원으로 탈바꿈한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9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의 후원을 받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인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 공공예술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문화재단은 최근 공공예술프로젝트 참여 작가 선정 위원회를 열고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초청 작가 신혜원 건축사와 2010 상하이엑스포 한국관을 설계했던 조민석 건축사, 한국건축가협회상 · 김수근건축상을 수상한 김영준 건축사, 협동원 건축사사무소 대표 이민아 건축사,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대표 박동준 건축사 등 5인을 참여 작가로 선정하였다.

사직공원공공예술프로젝트는 이들 다섯 명의 작가들이 공원 내 다섯 공간에 각각 공공 디자인이 가미된 작품을 세우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도심에 세워질 10여 개의 디자인비엔날레 광주폴리와 함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직공원에 세워질 작품들은 생태공간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통기타촌 앞 자투리 땅을 활용하거나 파고라와 관리사무소 등 노후화된 시설물을 리모델링해 생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또 숲 터널 샛길에 조성될 조형물은 시민들의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사직공원의 숨은 공간들을 끌어내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 작가들은 지난 달 두 차례에 기본구상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으며 이와 함께 광주문화재단은 사직공원의 과거와 현재, 미래 이미지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16일 제3차 작가 기본구상 워크숍을 갖게 된다.

한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일환인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 공공예술프로젝트는 2011년 11월 3일에 개최하는 광주도시건축문화제에서 작품 설명회를 실시하고 전시부스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며, 내년 2012년 5월 5일 어린이날 오픈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2011 건축사자격시험 5개 권역에서 열려

– 호남권, 광주 전자공고에서 진행, 198명 응시

지난 9월 4일, 전국 5개 권역에서 동시에 열린 2011 건축사자격시험이 호남권에서는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에서 열렸다.

작년부터 시험응시 자격이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만 응시가 가능하여 응시인원이 2009년도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으나 작년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하였다. 2009년 응시인원은 426명, 2010년은 161명, 올해 198명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예정자는 11월 4일 금요일에 과목별로 발표될 예정이다.

조선대학교 건축학전공 '2011 Open Lecture'

일 시	강 사	주 제	장 소
10월 27일 (목) 14시	(주)금성건축 김용미 대표이사	한옥의 진화–한옥, 신한옥, 한스타일	조선대 제1공학관
10월 28일 (금) 14시	(주)호반건설 김상열 회장	호반건설의 성장과 핵심 경영전략	17층 대형세미나실

광주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11' 폐막··작품 250점 판매

– 다양한 작품들 전시돼 서민들을 미술 시장으로 이끌었다는 평가

지난 4일 광주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11' 막을 내렸다.

조직위원회는 1일 개막한 '아트:광주:11'에 4일동안 2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았고 250여점의 작품이 판매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아트:광주:11에서 판매된 작품 가운데는 이이남 미디어 아티스트의 작품 '달항아리'와 호안 미로의 판화 등은 6000만원~7000만원에 거래됐다.

스위스 출신의 세계적 컬렉터 울리 지크는 비누아트 작가 신미경씨의 작품 한 세트를 수천만원에 모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아트:광주:11은 최저 10만원 대에서부터 수억 원에 이르는 비디오, 판화, 회화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돼 서민들을 미술 시장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아트:광주:11에 참여한 화랑은 73개이고 이 중 국내 화랑이 42개, 외국에서 19개 화랑이 참여해 국내 화랑 수가 지난해에 비해 2배, 전체적으로는 35%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나인갤러리, 자리아트갤러리, 108갤러리 등 광주 지역의 화랑 10개, 작가 60여명이 참여해 세계에 광주 예술시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이끌어 냈다.

광주시민회관 재조성 설계 본격 추진된다.

– 설계자 선정을 위한 지명초청 설계경기, 10월 25일까지 실시

광주공원 시민회관 재조성사업 및 공원 마스터플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지명초청 설계경기를 오는 10월 25일까지 실시한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건축설계경기 지명초청방식은 국내 유명 건축사 5팀을 선정하여 시민회관 재조성 기본계획과 공원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토록 하고 상징성 · 예술성 · 작품성이 반영된 설계 디자인을 유도하기위해 추진되었다.

광주시에서는 지난 23일 5팀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갖은데 이어 '시민회관 리모델링 설계도'와 '광주공원 일원 조경계획' 등의 작품을 10월 25일까지 접수한 뒤 10월 28일 건축사로 구성된 7명의 심사위원과 100명의 시민심사위원단이 작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에 광주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00명의 시민심사위원단 모집을 9월 중 실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에는 총 3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내년 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 참석기고 •

광주폴리답사와 디자인비엔날레 투어를 마치고...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3학년 최윤서

폴리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고 간 투어는 막바지에 다다른 여름날의 뜨거운 오전부터 시작됐다. 폴리 작업을 담당하신 건축사님과 관계자분들의 설명으로 폴리가 시민들의 도시에 설치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직접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서 무척 좋았다.

디자인비엔날레를 위하여 만든 폴리가 시공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작가의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완성으로 나타나서 아쉬운 점도 많았다.

폴리 투어를 오기 얼마 전 뉴스를 봤다. 폴리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보는 내내 과연 이것이 시민을 위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게 하는 뉴스였다. 뉴스에서는 시민들을 위하여 광주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만들었지만 불편만을 야기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럴 것이면 왜 만들었냐는 시민의 인터뷰는 지난 겨울 공모전으로 부터 시작된 폴리에 대한 나의 기대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시민을 위한 것인가 그저 대형 사치품에 불구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을 보는 시민의 자세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폴리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폴리의 공공성을 인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하여 본보기가 이루어진다면 폴리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폴리투어를 마치고 디자인비엔날레에 갔었다.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는 6개의 테마가 있지만 전체적인 주제와 느낌은 디자인과 오브제 그리고 장소와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다. 내가 평소에 느끼던 감정들을 작가의 오브제를 통하여 알려주었는데, 단순히 미술관의 그림을 보면서 쓱 지나기는 그런 일반적인 전시회의 성격보다는 보다 참여적이고 역동적인 느낌이었다. 5관까지의 전시회를 돌아보면서 나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작품들도 많았지만, 나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고 정보를 주고 또 그 현상에 대하여 한 번 더 관심을 갖게 하는 작품들도 많아서 공부를 하고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UIA 동경대회, 호남지역 건축사회원 50여명 참관예정

– 2017 UIA 세계건축사대회 서울 유치 지원 위해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제23차 세계건축대회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국제건축사연맹(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 제24차 세계건축대회를 참관하고 2017 UIA 세계건축사대회 서울 유치 지원을 위해 광주 · 전남 · 전북건축사회원 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8월 초부터 약 2주간에 거쳐 진행한 모집공고를 통해 호남지역 건축사회원 약 50여명이 참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UIA 세계건축대회는 1948년부터 3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건축문화행사로 공식행사, 특별강연, 주제강연, 건축물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히 이번 세계대회 총회(Assembly)에서는 한국 건축계가 염원하고 있는 '2017 UIA 세계건축대회'의 대한민국 서울 유치 여부가 확정되는 매우 중요한 행사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호남권 건축정책포럼 광주서 개최

– 호남지역 건축전문가들 호남권 건축문화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

지난 8월 30일, 광주 5·18기념문화회관 2층 대동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최로 2011 제2차 전국순회 건축 · 도시정책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순회 포럼은 호남권 건축문화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호남권 건축사 회원을 비롯한 시 · 도민, 산 · 학 · 연 전문가, 공무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상정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이 생활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건축 · 도시정책과 미래를 대비하는 건축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호남이 지닌 특성과 이슈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배시화 위원이 '녹색건축의 전통성과 시대성'을, 전북대 남해경 교수가 '지방도시의 주택공급 안정화 방안'을, 전남대 천득염 교수는 '행복마을과 한옥의 특성화 발전방향'을, 강남건축사무소 강남구대표는 '나무 심는 건축인 친환경 만들기'를 각각 발표했다. 지정토론 시간에는 김창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의 진행으로 이창율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지역건축전문가 8인의 지정패널들이 호남권의 지역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으며 방청객의 질문과 의견도 경청하였다.

포럼에 참석한 한 건축사는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의견이 건축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건축사회, 제2기 건축사 Academy 개설

– 10월 7일(금)부터 12월 20일(화)까지 6강좌 진행

광주건축사회는 회원사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들에게 건축 및 관련 분야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건축사 Academy를 개설하였다.

2기째를 맞이하는 건축사 Academy는 작년과 같이 대학 교수 및 사회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총 6강좌(12시간)로 진행한다.

교육기간은 오는 10월 7일 금요일부터 12월 20일 화요일까지이며 1강좌를 제외한 격주 화요일에 진행된다.

교육이수자는 회원인증 규정에 의거 회원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되며, 각종 추천 및 위원 위촉에 우선하고 회장 명의의 수료증이 교부된다.

광주건축사회는 9월 2일까지 진행한 모집공고를 거쳐 50여명이 넘는 건축사회원의 수강신청을 받았다.

제2기 건축사 Academy의 세부교육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 좌	강의일정	과 목	강 사
1강좌	10.07(금) 19:00~21:00	도시디자인	정 석(경원대학교 교수)
2강좌	10.18(화) 19:00~21:00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박구병(시설안전공단 실장)
3강좌	11.08(화) 19:00~21:00	친환경설계	조희철(에코넥스이엠씨 대표)
4강좌	11.15(화) 19:00~21:00	건축디자인	김정규(목포대학교 교수)
5강좌	12.06(화) 19:00~21:00	건축환경설비	송준영(설비기술사)
6강좌	12.20(화) 19:00~21:00	세무, 회계	황용현(공인회계사)

지능형 건축행정 적법성검토시스템 사용자교육 시행

– 광주 · 전남 · 전북 지역 건축사 및 직원 등 500여명 참석

전북지역 교육

전남지역 교육

국토해양부 산하 건축행정정보화추진기획단에서 주최하는'지능형 건축행정시스템' 사용자 교육이 광주 · 전남 · 전북 각 지역에서 연달아 개최되었다.

호남권에서는 9월 2일 전라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지역교육을 시작으로 9월 5일 광주건축사회관에서 열린 전남지역교육, 9월 6일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지역교육이 연달에 개최되었다. 3일간 진행된 호남권 교육에는 각 지역 건축사 및 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동 시스템은 기존 운영 중인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기능을 개선하여 인 · 허가 신청시 건축계획이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 지자체 조례 등의 건축기준에 적합한지를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2010년도에 서울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왔다.

한편, 이 교육은 7월부터 11월까지 지능형 건축행정 시스템을 확산 보급하기 위한 교육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시행되고 있다.

지역건축사회단신

광주 · 전남건축사회장단 간담회 개최

– 시 · 도 지역건축문화 발전과 상생 위해 협력키로

지난 8월 24일 광주건축사회 회장실에서 광주 · 전남건축사회장단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과 전남건축사회 윤문곤 회장, 목포, 순천, 나주, 여수 분소 회장단, 광주건축사회 대표 임원단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 · 도 지역건축문화 발전과 상생 위해 두 지역건축사회가 상호 협력키로 하였다.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 다문화가족지원 위해 '사랑의 쌀 전달'

지난 9월 2일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이 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사랑의 쌀을 전달하였다.

심상봉 회장은 전달식에서 "미력하게나마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건축사회원, 광산구청장과 간담회 가져

– 건축행정 신뢰성 향상 방안 등 협의

심상봉 회장

민형배 구청장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을 비롯한 건축사회원 22인은 지난 8월 12일, 광주시 광산구 광산구청 2층 회의실에서 민형배 광산구청장, 건축 관련 공무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산구 구민들을 위한 건축행정 신뢰성 향상 방안 등이 협의되었다.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 2011 지역발전주간 행사 참석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9월 7일부터 9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1 지역발전주간 행사에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이 초청되어 참석하였다.

지역발전주간은 지식경제부와 지역발전위원회, 16개 시 · 도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며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지역산업발전의 동기 부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행사이다.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건설분쟁! 공정한 평가

"건설분쟁은 공정한 평가와 대화로 해결된다."

감정인 건축사 정 태 호

25년 공사원가분석
15년 법원 공사비 감정 위원

TEL:(062)512-8044 HP:010-3602-3378

전북도 · 정읍시건축사회, 정읍시에 수재민 돕기 성금 전달

– 정읍시건축사회, 피해 입은 건축물 설계비 50% 인하키로 해

전라북도건축사회 이성엽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정읍시건축사회 이영교 회장 및 회원들이 지난 8월 31일 정읍시를 방문하여 수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을 김생기 정읍시장에게 전달하였다.

지난 8월 9일 정읍 지역에 41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재산 피해도 컸다. 그동안 피해 지역 복구에 많은 도민들을 비롯하여 공무원과 학생, 군인들이 참여하여 재해민들의 복구를 도와 재활의 희망을 주었다.

정읍시건축사회에서는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시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수해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의 설계비를 50%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정읍시에 이 같은 뜻을 서면으로 전달하였다. 앞으로 전라북도건축사회는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적극 발굴하여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해 위상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폴리를 가꾸는 사람들(폴가사)', 제2차 시민토론회 열어

–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개발 강조

폴리를 가꾸는 사람들(이하 폴가사)의 공식적인 대외 활동이 두드려지고 있다. 지난 6월 21일 제1차 시민토론회 개최와 함께 공식출범한 폴가사가 지난 8월 18일 광주문화재단 회의실에서 제2차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며 '광주폴리' 활성화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조용준 교수의 진행으로 열린 시민토론회는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이순미 건축사가 발제하고,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신태양 교수, 동아인재대학 건축과 남승진 교수,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상준 교수, 광주문화재단 박호재 문화정책실장, 광주시 도시디자인과 이기수 과장, 건축사사무소 선 서재형 건축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자로 나선 이순미 건축사는 영상자료를 통해 폴리 진행 과정과 문제점을 설명하며 폴리 유지 관리를 위한 시민 · 전문가 · 행정의 역할분담과 원활한 네트워크 운영, 예산마련 방안, 교육 · 문화콘텐츠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광주폴리 활성화를 위해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광주 폴리 만들기', '우리 마을 폴리 만들기' 등의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토론회 말미에 조용준 교수는 "광주폴리가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폐막 뒤에도 광주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할 예정이다"며 "시민들이 광주폴리를 이해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고 말하였다.

한편 광주 동구 옛 읍성터를 따라 설치된 광주폴리는 9월 2일,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과 함께 준공식이 열려 시민들에게 공개되었다.

곽승국 전담기자 ksk830710@hanmail.net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과 임원, 추석맞이 봉사활동 나서

– 광주 성요셉 사랑의 식당 방문하여 배식봉사 및 성금전달

성금을 전달하고 있는 심상봉 회장

광주건축사회 임원들의 봉사 사진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추석맞이 봉사활동에 나섰다. 지난 9월 8일 광주 남구에 위치한 성요셉 사랑의 집을 방문하여 배식봉사와 함께 재능봉사활동을 하였다.

이어 광주건축사회를 대표하여 심상봉 회장이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건축인들이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았다"고 말하며 "설계활동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이웃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와 같은 계기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고 소감을 밝히며 성금을 전달하였다.

광주 건축계 동정

***폐업**

– **양정열** 건축사 / 모아 건축사사무소 / 광주시 북구 오룡동 1110-7 (재)디자인센터 602호

***부고**

– **주남규** 건축사 / 남영 건축사사무소 / 별세 – 2011년 9월 6일(화)

– **박신남** 건축사 / 유림 건축사사무소 / 시부상 – 2011년 9월 7일(수)

전남 건축계 동정

***재입회**

– **박종성** 건축사 / 새우리 건축사사무소 / 전남 장성군 황룡면 황룡리 50-10

***변경 (소재지 변경)**

– **김도석** 건축사 / 미르 건축사사무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46-2

– **박종경** 건축사 / 가야 건축사사무소 / 전남 광양시 중동 1305-5(2층)

– **김강룡** 건축사 / 유피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장천동 51-7 (3층)

– **유장기** 건축사 / 에이원 건축사사무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840 (2층)

전북 건축계 동정

***변경 (소재지 변경)**

– **조익환** 건축사 / 성도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401-10

– **문경재** 건축사 / ㈜진우 건축사사무소 / 전북 임실군 이도리 53-1

***부고**

– **오성만** 건축사 / 오 건축사사무소 / 장인상 – 2011년 8월 11일(목)

● 법령정보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분기준 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개정(행정안전부예규 제329호, 2010. 10. 26)되면서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기술용역과 1억원 미만 기술용역으로 분리하도록 개정 · 시행하고 있다.

참고로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동 제도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은 건축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엔지니어링 분야 등 타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건축사사무소가 소규모 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부처 및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kira.or.kr) → 법령정보 → 기준 및 고시 → 공공발주 및 계약 관련기준 → 행정안전부 3번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2012년 10월 광주에서 뵙겠습니다.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윤 춘 주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062-226-7400 팩스:062-225-5310
홈페이지:nicelawyer.co.kr/윤변호사.com

건축문화 사람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 행 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 행 인 심상봉, 윤문곤, 이성엽
편 집 인 박홍근
전담기자 곽승국
편집위원 이순미, 서재형, 강필서,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천경훈, 이광영, 박상윤, 정관성, 박종호, 양우현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삼화문화사 T.062)222-6660
광고신청 T.062)521-0025

건축문화 사람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문 형 록	반석기초이앤씨(주)	100만 원
(주)환경이에스피		50만 원
동일교역(주)		50만 원
알파시스템창호(주)		50만 원

표 / 지 / 설 / 명

광주폴리 준공

광주의 세계적 작가의 건축 폴리들레길이 조성되었다.
처음 조성된 의도대로
정체된 구도심에 변화와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 해 본다.

건축문화 사람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 (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 의 :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세상사는 느낌

오늘도 난 대나무 숲을 걷는다.

신동호 관리부장
담양 대나무골테마공원

오늘도 난 대나무 숲을 걷는다.

맑은 공기와 함께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대나무 숲은 잠시 도시생활을 잊게 하고 마음의 안정을 준다. 사시사철 푸른색을 띄고 있는 대나무의 모습은 언제 오더라도 그 모습 그 색을 간직한 채 나를 반긴다. 복잡하고 힘든 생각들이 온통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도 대나무 숲에만 오면 청아한 그들의 모습에 머리가 가벼워진다.

대나무 숲 속 한가운데 서 있는 나의 모습은 왠지 초라해 보인다. 쭉쭉 하늘로 곧게 뻗은 그들의 기상이 우선 나를 기죽게 만들고 새파랗게 항상 푸른색을 간직한 모습은 영원한 젊음을 보는 것 같다. 나이가 들면 주름과 흰머리가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그들은 언제 오더라도 항상 푸르다.

대나무의 고장인 전남 담양군. 그 곳에서도 봉서리에 위치한 담양대나무골테마공원의 대나무 숲길이 아름답고 정겹다.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대나무골테마공원은 울창한 대나무 숲길과 함께 황토길을 따라 이어진 소나무 숲길도 있다.

어른 팔뚝보다도 굵은 대나무들이 솟아 있는 이곳의 숲길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새들의 울음소리가 먼저 반긴다.

입구쪽에는 물분수와 장독대, 맷돌로 이어진 조그마한 샘물이 보인다. 샘물은 대나무 숲속을 따라 나왔다. 차가운 물맛에서 대나무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장독대는 물분수와 어우러져 운치를 더 한다.

대나무 숲속은 항상 그늘이 있다. 강한 햇빛은 대나무 사이를 비추고 푸른 기운과 함께 오묘한 자연의 색을 만들어 낸다.

제법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대나무 숲은 소리를 낸다. 몸과 가지가 부딪쳐서 들려오는 소리다. 가벼운 바람이 불 때면 대나무 잎이 스치며 '스르르르' 소리가 난다. 숲길 저 건너편에서부터 밀려오는 이들의 소리는 내 머리 바로 위를 지나 이곳저곳을 떠돌며 휘감는다.

좀 더 강한 바람이 불면 이들은 몸을 부딪친다. 정해진 간격 없이 '딱 따다닥 딱' 소리를 낸다. 울창한 숲속에서 서로의 몸을 의지하는 듯하다. 마치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반갑게 다시 손을 맞잡는 듯 이들은 서로를 의지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몸을 기댈 때 듬직한 버팀목이 되어주듯 그들도 서로를 믿고 숲을 이루고 있다.

눈을 잠시 감고 숲속에서 소리를 듣는다. 도시를 잊고 자연의 소리를 듣는다.

한편의 시

자동안마

문 창 식
사인/건축사

대비식날
봉고차 편승하여 뒷자석에 자리한다
폭설이 내리고
매표소 부근에서 앞 타이어에 두 일행이
체인을 채운다
차는 달리고
눈이 감긴다
엇박자 소리와
엇박자 등 두드리는 편안함
일상의 고단함을 밀어내는
저 하얀눈
하양
밝음을 피워대는
목적지가 눈에 선연하다
등을 두드리는
꿈속의 누이
무설야.

학생기고

자이니치 이야기

서민석 학생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지난 8월 10일 삿포로 돔. 전반 34분 타다나리의 힐패스를 받은 카가와 신지의 선취득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일본에게 0대3 완패, 37년만에 최다 골 차로 우리의 골문은 농락당했다.

그까짓 공놀이가 명성황후의 능욕에는 비할게 못 되지만 내가 본 90분의 축구 전쟁에서 느낀 아픔은 삿포로 참사의 전조가 되었던 재일교포 4세 이충성, 아니 타다나리의 힐패스였다. 그는 왜 조국의 골문에 골을 넣으려는 일본 축구 국가대표가 된 것인가? 한국인이면서 한국인이 아니고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인이 아닌 그는 '자이니치'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을 맞았고 일본에 있던 재일동포들도 곧 모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믿음이었다. 미국과 소련, 강대국의 이념대립은 그들의 땅이 아닌 몽매한 우리의 그것 위에서 힘겨루기를 했고 이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에 있던 우리 동포들은 돌아갈 고국을 잃고 적성국가에 그대로 남게 된 것이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일본 사회에서 그들은 아직도 갖가지 법적 불리함과 편견에 맞서 한국의 정체성을 지키려 몸부림 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 그러한 일본의 차별보다 더 큰 상처는 그들을 향한 우리의 차별일 것이다.

같은 한국의 피가 통한다 하더라도 먹는 것과 공기가 다른 환경이라서인지 정작 재일동포를 마주하면 얼굴도 느낌도 모두 낯설게 느껴지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광복절을 맞아 '광복주'를 마시는 우리의 대학생보다 어쩌면 그들의 혈관 속은 우리의 피보다 더 진한 한국의 피를 지니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나도 한국인이고 그들도 한국인이다. 우리는 한국의 역사라는 복잡하고도 아픈 시간들 위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

나는 지금 아름답고 추상적인 '연대(連帶)'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겪은 아픔의 흔적들을 마치 범죄자가 증거인멸 하듯 깨끗이 없애야 개운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

그래서 이충성의 힐패스를 받은 카가와 신지의 선취득점은 일본의 골이 아닌 우리 자신에 대한 열등감의 소산인 자살골이다.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는커녕 그저 취업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 이렇게 몇 자 적어보는 것으로 내 무지함을 자위 해 본다.

그래도 부끄러운 심정은 가릴 수가 없는 모양이다.

건축사Gallery & photo

유화 15호

향구

떠나가는 배
들어오는 배
보내는 마음
기다리는 그리움
사연 싣고 오가는 배
항구는 삶에 안식처인가

양동현 건축사(광주) 作

전남 보성 녹차밭 (2011. 8. 21)

자연의 '켜'나눔

자연의 '켜'나눔
수평,수직 그안의 사람들
더불어 공존하는 사물을 통해
자연의 포용과 가치를 배운다

촬영자 천경훈 건축사(전남)作

새시대!

대한민국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광주건축사회!

– 시민 곁엔 언제나 든든한 300여 광주건축사회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광주 개최

대한민국 8,000여 건축사들의 축제가 광주에서 개최됩니다. 광주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축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행사명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 일 시 : 2012. 10월 중
· 장 소 : 광주 지역 일원

▶ 광주건축 · 도시문화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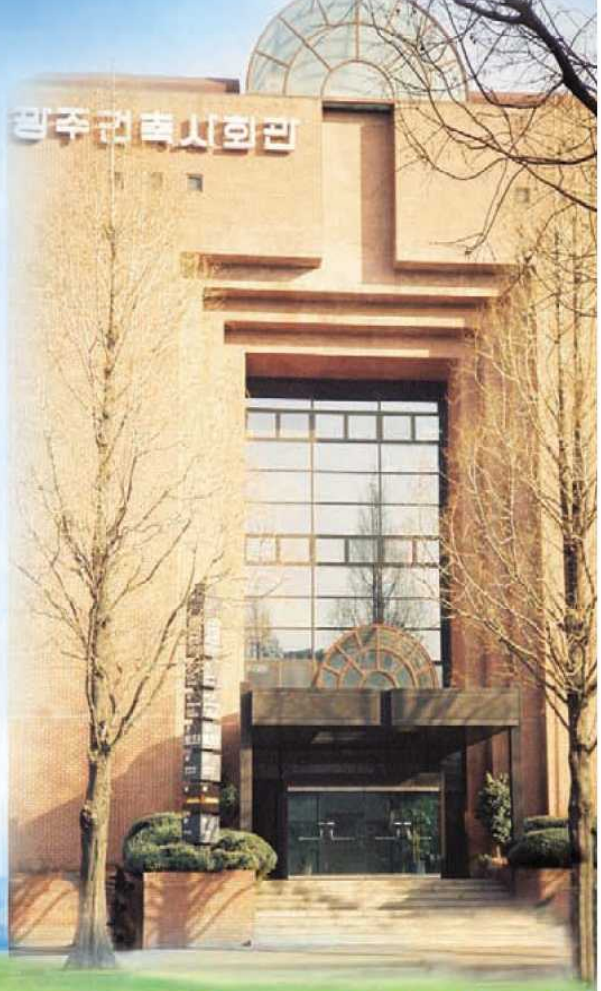
매년 광주지역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개최하고 있는 광주건축 · 도시문화제가 올 가을,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 행사명 : 제8회 건축도시문화제
· 일 시 : 2011. 11. 3(목) ~ 6(일)
·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 서구 치평동)

▶ 국제건축문화 교류

광주건축사회에서는 지난 1998년부터 일본 JIA 후쿠오끼회와 활발한 건축문화 교류를 통해 한 · 일 양국의 새로운 건축문화를 창조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에는 '교류는 미래를 향한 도전'이란 제목의 교류 10주년 기념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 시민안전 결의대회

광주건축사회원은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확인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위법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500-876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485 (중흥동 694-10)
Tel.(062)521-0025~6 Fax.(062)528-0026
홈페이지 http://gjkira.kira.or.kr

LG Hausys

럭시움에너지(주)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33-33
대표전화 062)525-6801
www.alfawindow.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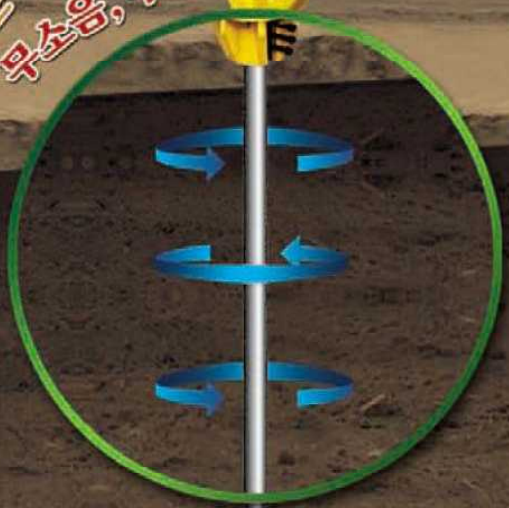
알파시스템창호(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전동 913-4
대표전화 062) 943-680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 ISO 9001인증

ROTARY PILE 공법

나선형 회전운동으로 지반에 삽입하여 주변 마찰과 선단지지함으로써
압축과 인장력에 강한 지지력을 최대화한 친환경 파일 공법

빠른시공
무소음, 무진동, 비배토



시공사례

부천고강동 공영차고지

군산 한산공장

군산 OCI 공장

파주 한양 아파트

속초 한화리조트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325-1호 반석빌딩 2F 031.577.1673 www.bs-base.co.kr

반석기초이앤씨(주)
Bansuk Base E&C Co.,Ltd